

독자와 함께

화재 주범 전기·가스 '보고 또 봐야'

양중근 소방령이 전하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

요사는 이는 가을과 겨울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가을인가 싶으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근본한 날씨 탓에 겨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1년을 사계절로 나눈다면 11월까지는 가을이 있고 12월부터가 겨울에 해당한다. 말하자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겨울인 셈이다.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화재를 줄이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여러 가지 화재 예방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재래시장이나 노유자 수용시설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쉽고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대해 점검도 실시하고, 전체화재의 30%를 차지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차가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는 대책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 사격장 화재(15명 사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까운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화재 또한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방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



광산소방서는 최근 월곡시장에서 광산소방서 직원, 이용소방대, 시장상인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 주기·불조심 안전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노후된 전선·배관 교체... 사용 안하는 플러그 뽑도록

소화기 비치·비상구 개방·소방차 통로 확보 필수적

그런데 이러한 화재들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나 관리소홀로 발생한다 는 점이 문제인데 주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화(放火)를 막아야 한다. 방화는 보험금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불만해소를 위해 저지르지만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인명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방화로 발생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148명 부상)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방화는 결코 없어야 한다. 방화가 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형법에서도 여타 범죄에 비해 아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둘째로 전기시설의 안전한 사용이다. 우리 생활에 전기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격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전열기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노후된 전선이나 기구 등을 교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것도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셋째로는 가스시설의 안전한 사용이다. 가스화재의 대부분은 배관이나 기기밸브보다는 불을 켜놓은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불을 켜놓았다는 사실을 깊숙이 잊어버려 화재로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한다면 가스화재도 훨씬 줄일 수 있다.

▶ 양중근·광주시소방안전본부 예방홍보담당

해야 한다. 특히 유류를 연료로 하는 난로의 경우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사용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전기나 가스를 연료로 하는 경우도 고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 한 가지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기소화에 필요한 소화기의 비치는 물론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정상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비상구를 항상 개방해 놓아야 한다. 비록 화재는 발생했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또 하나 소방차가 원활히 출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이 이면도로나 아파트 부지 내에서 규정된 주차 선을 어긴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감을 맹심해야 한다.

▶ 양중근·광주시소방안전본부 예방홍보담당

겨울

구용수

그대를 사랑하고서야
온전한 나를 보았네.
기뻐하는 그대를 보고
내가 비로소
기뻐하고 있음을 깨달았네.
나는
그대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네.

꽃이 자기를 버려야
영매 맷듯이
온전히 나를 이우고서야
그대를 사랑할 수 있네.

그대를 사랑한 뒤에
그대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

저절로 벙글고
그대 위인 헌신과 배려
하나도 힘들지 않네.

오~
방긋 웃는 그대의 미소
나의 모습이네.
사랑하고 싶은 그대
가을에 불리는 단풍처럼
그대 향한 가슴앓이여.

‘문예시대’ 시 등단
서은문화연구소, 광주문화협회 회원
첫 시집 ‘사랑이 꽂처럼 눈 뜨는 시간에’

추억의 한컷



겨울철 자전거 석유배달

이맘때쯤이면 광주 총장로 상가 일대에서는 석유배달하는 자전거로 분주했다. 1982년 겨울 총장로 일대.

〈광주일보 자료사진〉

클릭! 맛집



뽀얀 속살이 입안에서 살살~

얼큰한 국물맛 비결은 된장... 회덮밥 점심메뉴로 제격

■ 광주 불로동 ‘송하회관’ 조기매운탕

광주시 동구 불로동 구시청사거리 송하회관(업주 김봉순)은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한 깊은맛’을 내는 짜. 물에서 막 건져 올린 조기를 시원하고 얼큰하게 끓여낸다.

매일 공수해 온 상상한 조기는 윗맛이 깔끔하다. 조기라는 놈은 한 번 냉동실에 다녀오면 고기가 땅에 부드러운 맛이 사라진다. 이 집은 생물을 쓰기 때문에 고기의 씹는 맛부터 다르다.

뚝배기에 담긴 조기 살점은 숟가락으로 살짝 만 끓어도 한 움큼 떨어져 나올 정도로 부드럽다. 그 맛도 기막히다. 뽀얀 살점을 입에 들어가기 무섭게 녹아내린다.

20여 년 이곳을 자킨 주인장 인심도 후해, 야구 선수 손바닥만 한 조기 3~4마리를 큼지막한 뚝배기에 아낌없이 담아낸다.

시원한 국물은 ‘크’, ‘카’, ‘으’ 등 감탄사를 절로 낸다.



대파, 양파, 무 등을 4시간 동안 삶은 육수에 조기를 넣고, 고추 다진 양념으로 맛을 낸다.

조기 특유의 비린 맛은 된장으로 잡는다. 넣은 듯 안 넣은 듯, 직접 담은 된장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국물 맛의 비결이다.

어찌나 국물이 개운한지, 열 사람이 함께 와도 먹기에 바빠 먹는 동안은 말이 전혀 없을 정도, 또 뚝배기의 구멍이 뻔뻔한지 남기는 사람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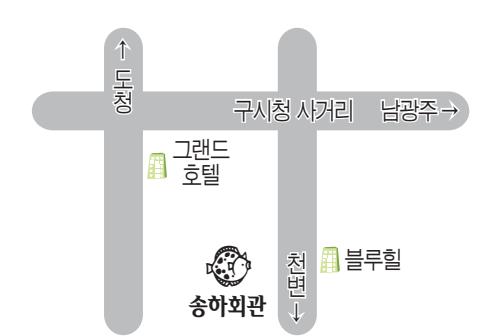
이미에 다이아몬드 무늬가 선명한 영광굴비를 고소하게 구워내는 굴비정식도 이 집의 대표 음식이다. 굴비를 먹기 좋게 찢어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밥 도둑이 따로 없다.

괭이, 둠, 민어를 넉넉히 썰어 넣은 회덮밥은 점심 메뉴로 그만이다.

금방 지진 고기전과 명태전, 고등어·갈치 조림, 병치·전어 회,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은 깊은 맛은 말반찬이 제공된다. 조기매운탕 1만5천원, 굴비정식 2만5천원, 회덮밥 1만5천원, 문의 062-223-2223.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찾아가는 길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증개사 082)431-2834.
(H.P) 010-6460-2834

▶ 전남 나주시 명신동

- 배나무 과수원 수령 17년 430주

- 창고 의 30평, 도로 사용권호

■ 매매가 평당 15만원

▶ 광주 광산구 익곡동

담 550평, 흥당 9만원

- 도로길, 투자지역 양호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자비리

일 402,736평(7,180평), 흥당 7천원

- 대차지 진입 가능

▶ 전남 보성군 풍천읍 장촌리

일 1360평 - 평당 5천원

- 도로길, 남성, 이산 경시도원만

▶ 전남 창원 유곡리

전 403평 매매가 3천200평

- 기족집과 주일동정

- 모자이크 조건 매우 양호

▶ 광주 북구 태평동 협곡동 부근

일 804㎡(26평) 평당 2,500만원

- 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땅은 무식재원, 민원이지 않을

- 도로길, 가족묘지 및 주민동장 적합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초현리

일 104,771㎡(32,000평) 평당 2천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디자리

일 74,601㎡(24,000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장성군 강현면 원수리

일 2,567,157㎡(77,656평), 평당 1만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순천시 청평면 월계리

일 1,678평 평당 1만원

- 계획관리지역 약 800평 포함, 허락증 및

수면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장성군 청평면 월계리

일 2,567,157㎡(77,656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장성군 강현면 원수리

일 2,567,157㎡(77,656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장성군 강현면 원수리

일 2,567,157㎡(77,656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 산-무

식재, 물정을지 가능, 자동화 매장형 많음.

▶ 전남 장성군 강현면 원수리

일 2,567,157㎡(77,656평), 평당 1만원

- 관리지역 일부포기, 허락증 및 저수지

영현 계수면 10년생 800평 식재